

천국과 지옥

이제훈

지난 5월 16일은 ‘성년의 날’ 이었습니다. 만 20세가 되어 사회에서 성인의 위치에 서게 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날이 되면 천국과 지옥을 봅니다.

대학교회 바로 옆에 사회과학대 학과동아리 방이 모여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7-8개의 동아리들이 동아리 방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학생들이 들고 납니다. 수년 전부터 성년의 날이 되면 이상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남녀 학생들이 손에 밀가루봉지를 들고 미친 듯이 질주를 합니다. 서로를 향해 밀가루를 뿌려댑니다. 그리고는 양손에 계란을 들고는 밀가루를 뒤집어 쓴 머리에 계란을 깨뜨립니다. 그런 다음에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서로 물세례를 줍니다. 대학교회 앞마당에서 이런 광란을 벌여 야단을 치고 제지를 해도 이 광란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밀가루와 계란에 뒤범벅이 된 학생들 붙들고 도대체 어느 학과 학생인가를 물으면 ‘몰라요.’ 라고 기막힌 대답을 합니다. 이런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자리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서글프기 까지 합니다. 이런 난장판 뒤에 청소 할 것을 주문을 했더니 서로 자신들이 그리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동아리만을 지목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천 명이 머물고 있는 기숙사가 있는 캠퍼스 어느 곳에선가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괴성을 지릅니다. 이런 무법천지의 모습은 천여 명의 학생들이 자취를 하고 있는 인근 대학촌에도 이어졌습니다. 한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밤에 이렇게 밤을 지새운 성년들이 다음날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이(성년 같지 않은 성년)들이 앞으로 십수 년 내에 한국사회 사회과학분야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리더의 자리에 설 것이라 생각하니 아득한 생각까지 듭니다.

같은 시간 대학교회 소 예배실에 성년을 맞은 십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수십 명의 형제자매들이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성년이 된 형제자매들은 주님 앞에 자신들이 성년이 되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고백들이 있었고 주위에 둘러 선 선배들과 후배들이 저들의 성년이 됨을 축하하면서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졌습니다. 축복의 기도 뒤에 이어진 성년이 된 형제자매들을 향한 축복의 찬양이 들려질 때 저들의 눈가에 이슬이 맺혀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천국과 지옥을 보았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이 선명히 보인 시간이었습니다.

“묵시(vision)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학생생활상담 연구소에서 성년의 날을 기념하여 주관한 특강 현수막 문구(성숙의 의미)가 웬지 어색하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대학과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울고 통곡해야 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살림!!